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종광 소설가

소설이 읽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뉴스가 더 재미있기 때문이다. 허구(그럴 듯하게 꾸민 일)보다 더욱 흥미진진한 실제 사건이 날마다 계속된다. 그 어이 없고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들에 대해서 '재미'나 '흥미진진함' 같은 표현을 써서는 안 될 터이다. 그러나 그 사건들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작태와 대중의 반응을 보면, 너무도 즐기는 듯하다. 하지만 어쩌면 그토록 소설보다 더 '허구'스러운 일이 실제 남발되는 까닭은 소설을 잘 안 읽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문학 따위가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문학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시나 소설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은 극소수다.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문학을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 국민은 문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초중고에서 문학 교육을 하고, 문학에 최소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문학을 종교처럼 떠받들어 주는데, 그래도 문학을 '공활히' 대우해 주는 것이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가장 먼저 태어난 예술은 미술, 음악, 무용일 것이다. 경험이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든 재미로 그냥 그랬든, 동굴 벽화로부터 미술은 발전했을 테다. 신화이든 감정의 반영이든 노래로부터 음악은 성장했을 테고, 제의든 축제든 다 함께 어울리는 행위로부터 무용은 진보했을 테다.

인류가 문자를 만들어 내고서야 문학은 탄생할 수 있었다. 노래를 기록한 것에서 시가 나왔고, 공동체 행사 대문로부터 희곡이 생성되었다. 시로는 답이 없던 인류는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를 이루기 힘들었을 것이다. 문학은 감정을 발달시킨다. 개별적인 인생을 이야

기한다. 이해타산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한다. 하여 타자의 처지를 헤아리게 만든다. 존중하게 한다. 배려하게 한다. 또 한 문학을 생각하게 만든다. 관념이 고정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한다. 불의와 싸우도록 한다. 모순을 파헤치도록 충동한다. 이 끝없는 감정과 생각 행위가 문학이다. 즉 문학은 대단한 정신노동이다. 인류 역사에서 문학하는 자는 언제나 소수였고, 문학이 사회 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늘 유명무실했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균형추이자 없으면 안 되는 심장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문학과 더불어 발달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동물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을 테다.

어느 시대나 일정 수준의 문학인(작가 뿐만 아니라 문학을 애호하는 독자)은 존재한다. 어느 시대엔 문학인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어느 시대엔 급격히 상승한다. 경제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문학인이 많은 시대일수록 상식과 도덕이 통하는 사회일 테다. 문학인이 희박한 시대는 야만사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훈련을 해 본 적이 있는 이들과 감정을 조율할 줄 모르는 이들이란 가독한 사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은가.

국어는 의당 가르쳐야겠지만, 국어 가르치듯이 문학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문학을 자유롭게 감상하도록 이끌고 다각도로 느끼고 생각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게 문학 교육이어야 한다. 평가의 조건으로, 시험문제를 풀기 위한 지문으로, 오로지 하나의 해석만 가능한 것으로, 게다가 억지로,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건 엉터리다. 그런 식으로 배우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문학이라면 치를 떨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다. 교육이 오히려 시와 소설과 에세이와 희곡과 비평을 즐길 권리를 청춘들에게 빼앗은 것이다.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면,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문학을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문학을 접하고 자기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문학을 즐길 테다.

감정지수가 영(0)인 듯한, 상식이 아예 없는 듯한, 타인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는, 시나 소설을 읽고 감동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이들이 등장하는 파란만장한 뉴스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문학을 사랑하라.

종교칼럼

통섭의 신앙인



정세완 원불교 광주 농성교당 교무

하나가 바로 사자라는 것이다. 이 사슴을 부처로 보지 못하면 어디에서 부처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한 마굿간에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께 서 만약 로마의 왕자로 태어나셨으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땠을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으시고 목숨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바치시고 태초의 자리로 가셨기에 하느님의 아들로 선택받았다. 기독교 영성가 다석(多夕) 유영모는 신을 부를 때 '없이 계신 하느님'이라 불렀다.

원불교에서는 없이 계신 하느님을 '공(空)'이라 부른다. 텅 비어서 아무 것도 없는 공이 아니다. 모든 색(色·형상)이 태어나서, 작용하고, 돌아가는 만물의 본향(本鄉)이다. 없는 가운데 꼭 차 있기에 '진공묘유(真空妙有)'다.

길가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처임을 깨닫는 순간 내 안의 부처가 살아남을 느낄 것이다.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21세기는 통섭의 인간을 원한다고 했다. 통합은 물리학적 합침이다. 셀러드와 같다. 사과와 오이의 만남이다. 융합은 화학적 합침이다.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물이 되는 이치와 같다.

통섭은 생물학적 합침이다. 부부가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통섭은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대통합을 이뤄냄을 의미한다. 통섭의 신앙인은 예수를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알라를 신앙하거나 상관 없이 모든 종교인에게 주어진 화두이다.

세상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현 시대의 다양한 가치관 속에 소통 부재는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조하는 통섭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

세계 최대의 철광석 생산 기업인 브라

질의 한 기업이 용광로를 가동하기 위해 화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밀랍을 싹 밀어내고 화목으로 유용한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었다. 화목으로 가치가 높아 많은 이윤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유칼립투스 숲에는 다른 나무들이 많이 살게 되었다. 또한 유칼립투스의 뿌리가 깊지 않아 물을 머금을 수도 없고, 물을 저장하지 못 하니 정화 작용도 하지 못 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자연적으로 오염된 지역이 되고 환경 자체가 유해한 환경으로 변하고 말았다.

건강한 숲에는 다양한 종의 생물이 경쟁하며 사는 숲이다. 인간 사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형형색색의 인종과 민족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경쟁하며 새로운 숲을 만들어 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통섭은 서로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서로의 답장을 낮춰서 새로운 합리의 가치관 속에서 서로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것이다. 6월 추모의 달에 통섭의 신앙인이 되기를 염원해 본다.

社說

광주 시내 '30분 대중교통 시대' 열린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논의를 시작한 지 17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당초 올해 상반기를 착공 시기로 잡았지만 광주세계수영대회 개최를 앞두고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우려해 오는 8월 착공하기로 했다.

첫 삽을 뜨기 위한 행정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 최대 난관이었던 총사업비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애초보다 1182억 원이 증액된 2조1761억 원으로 확정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도 마쳤다. 이로써 도시철도 2호선은 2022년 첫 노선이 시작된 지 17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그동안 필요성과 경제성을 두고 찬반 여론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압도적인 찬성 의견에 따라 건설을 결정 지은 바 있다.

총연장 41.84km의 타원형 코스인 도시철도 2호선은 3단계로 나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계별로 완공할 때마다 개별 개통을 하는 만큼 시민 불편

은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분담 효과는 극대화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구상이다. 3단계까지 완료되면 광주는 어디에서든 버스나 지하철과 연계해 30분이면 오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6년이나 되는 만큼 '30분 대중교통 시대'를 열기까지는 교통 체증 등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교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교통처리특별대책반을 구성할 계획인데 공사 전부터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 대책 마련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부품에 대한 품질 검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데 안전한 지하철로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도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 등 불가피한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형평성 잃은 광주시교육청의 이상한 징계

광주시교육청의 형평성을 잃은 징계 처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쿨미투' 논란 당시 성비위 사건에 단호하게 대응했던 것과 달리 유사한 횡령 사건에서 유독 교육공무원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는 지난 3월 말 광주의 한 사업유치원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방식을 시연하면서 해당 유치원 원장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이 적발돼 지난 4월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징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당시 일각에선 A씨의 징적 2개월 처분이 '스쿨미투' 당시 언어적인 성희롱만으로 해임 이상 또는 징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교사들과 비교되며 논란이 일었다.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시교육청의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뒤늦게 시 교육청은 A씨에 대한 재심을 열고 해임 발령을 내지만 여론의 시선

은 싸늘했다.

시교육청의 '이중 잣대' 징계는 이번만이 아니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500만 원의 태블릿PC를 훔쳐 되팔아 사익을 챙긴 광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B씨에 대해 8급에서 9급으로 강등 조치만 했다. 반면 지난날 희망교실 예산 179만 원을 횡령한 광주 초등학교 교사와 지난해 희망교실 예산 5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C씨에게는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시 교육청이 거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스쿨미투' 징계와는 달리 행정직 교육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관대 한 건 징계위원 상당수가 교육공무원인 점과 무관치 않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인 것이다. 교육 공직자 역시 일반인과 다른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영국에서 셰익스피어를 전공한 대학 은사는 학생들에게 때때로 화폐와 박물관 얘기를 들려주곤 했다. 한 나라를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지폐를 보거나 박물관에 가 보라는 것이었다. 이 말이 귀에 쫓겨 외국 여행을 할 때면 그 나라의 화폐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어떤 인물이 화폐의 주인공인지를 보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지향하는 가치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발행이 최소 5만 원권이 최고액권의 자리에 올랐다. 신사임당에 대해서도 가부장적 가치관에 기초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전형이란 일부 비판이 있었다. 오만 원권은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겼다는 긍정론과 지하경제를 키운 주변이라는 상반된 평가 속에 우리 생활상을 많이 바꿨다. 두툽한 지갑 대신 지폐 몇 장만 끼우고 다니는 젊은 머니클럽이 직장인들 사이에 대세가 됐다. 또한 경조금 단위를 최소 5만 원으로 급격히 올려놓았

다. 2011년 김재의 마늘 밭에서는 110억 원어치의 5만 원권 다발이 발견돼 지하 경제를 키운

열 살 된 오만원권

5만 원권은 최고액권이자 유일하게 여성 인 신사임당이 주인공이란 점에서 단연 관심을 끌 만하다. 신사임당은 아들인 율곡 이이(1000원권)와 함께 모자(母子)가 나란히 지폐에 등장하는 지구촌 유일의 인물이기도 하다.

5만 원권은 탄생부터 녹취지 않았다. 정부는 2009년 5만 원권과 10만 원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인물 선정에 들어갔는데 10만 원권 인물로 선정된 김구 선생을 두고 이념 논쟁이 일면

5만 원권은 최고액권이자 유일하게 여성 인 신사임당이 주인공이란 점에서 단연 관심을 끌 만하다. 신사임당은 아들인 율곡 이이(1000원권)와 함께 모자(母子)가 나란히 지폐에 등장하는 지구촌 유일의 인물이기도 하다.

5만 원권은 탄생부터 녹취지 않았다. 정부는 2009년 5만 원권과 10만 원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인물 선정에 들어갔는데 10만 원권 인물로 선정된 김구 선생을 두고 이념 논쟁이 일면

기 고

무안 항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하려면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각국 공항들은 공항 주변 지역에 미래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 산업의 최적지임을 인식하고, 공항 개발과 주변 지역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공항이 기존의 단순한 교통과 물류 기능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복합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형 복합 도시 형태로 개발을 추진하여 공항과 연계된 서비스 제공으로 공항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공항(Airport)의 기능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의 승객, 물류, 이동의 단순한 교통 기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서비스 및 산업 활동이 공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항 복합 도시(Airport City) 시대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항 주변 지역을 활용하여 공항 복합 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함부르크와 린

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공항 등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기의 동체와 엔진, 부품을 생산·정비하고 조립할 수 있는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산업형 복합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공항 주변 지역을 새로운 도시 발전의 모델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안 국제공항도 외국의 선진 공항처럼 강점을 활용하여 항공산업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공항 주변에 항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전초 기지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무안 국제공항 주변 지역 34만 9000㎡에 항공 정비(MRO)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산업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회를 거쳐 최종 승인되었다. 항공산업 특화단지에는 기내식, 부품, 물류, 산업용 기계, 항공기 정비 서비스 등 항공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전남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서 항공산업 집적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무안 항공산업 특화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진 과제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로 국

내 항공 기술 수준과 지역적 이점을 고려한 항공산업별 육성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공기 정비는 시장의 여건과 전망, 무안 지역의 장점 등을 고려할 때에 회전익, 소형 비행기, 저가 항공사의 부품 정비와 항공기 개조 산업으로 특화하여 집중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기 개조 사업은 신흥 성장 지역인 아시아 지역의 저가 항공사를 주요 타겟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여 항공기 개조 사업을 블루오션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 기내 오락 장치 제조업은 국제적 노하우와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들을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기 정비 산업 중심의 항공 복합 산업 단지를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 산업 단지는 고장 탐구, 결합 수정, 부품 교체 등 항공 운항 정비와 기체 중 정비, 엔진 중정비, 부품 정비 등이 가능한 항공 특화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 교육 훈련 센터, 계류장 및 주차장, 격납고, 운수 및 창고업 등이 포함된 복합 산업 단지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산업 특화단지를 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항공 관련 외자 유치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항공 관련 산업의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세제 및 자금 지원, 항공 관련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인 전용 임대 주택 공급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면 항공산업 복합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항공특화 산업단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선박 펀드와 같이 항공산업에 대한 금융·세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다양화·전문화·차별화 된 수요자 중심의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무안 항공산업 복합도시 개발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항공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추진 주체 설립 지원과 핵심 주도 기업의 발굴 및 유치, 항공 부품 정비, 기내 오락 장치 등 협력 기업의 적극 육성에 필요하다. 항공 관련 업체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제공, 항공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항공 교육기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 정부의 역할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